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購讀料 壹部(朝夕刊)金五錢 壹個月先金[illegible] 六個月先金[illegible] (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一行[illegible] 揭載指定料五割增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變轉되는中國의戰亂
―日本은畢竟出兵決定―

一

吾人이中國의戰亂과 밋그變轉되는政情을述하기累次이엇섯다 民衆的自覺을要約한 戰爭이아니오 彼等一黨一派의不正한權力爭奪을爲한 史家所謂 私戰을 反覆하는그들의現狀에잇서서 원래그의形勢를一定한範疇에依하야預斷하기어렵은바어니와 今次의戰亂은 前例에依한軍閥派의角逐의外에 다시微妙한思想的體系가그의相對者間에錯綜한바잇서그의背後에서運動하는大衆의勝勢와함께 戰局의成敗를 支配하는바매우만흐니 今次의戰亂이昨冬가지의各種의內亂에比하야 매우서로다른바잇는것은 이러한事情에依한것이다 그리고最近數日間의北中國一帶의戰亂의形勢가또한매우微妙하야 자못揣摩키어렵은바잇다

二

向者郭松齡이馮玉祥과結託하야 灤州의一帶에서 反奉의兵變을닐으키매 馮玉祥이國民軍을거느리고 北京의四圍를掌握하게되고 國民黨의左傾派가그의中間에서 策應한바잇서 北京의政局은 거의一變에赤化함과가튼形勢인바를報하엿고 直隸山東의兩督이 모다國民軍의占據함에돌어감이 目睫間에잇슬것가티宣布되엇섯다 그러나 李景林이軍兵으로 天津의一帶에蟠據하고 이와聯結한 張宗昌이오히려山東의大部를固守한바잇스며 岳維峻과馮玉祥이 오히려直隸融合하지못함이 잇는一面으로 다시吳佩孚 孫傳芳諸人의直隸派諸將과 서로乖離된바잇서서 複雜한局面이 자못混亂의終結함과가트니이는識者의 일즉豫測한바이나 또한매우注意할[illegible] 變態百出의興味가잇는바이다

三

突然히反奉의兵變을닐으킨郭松齡이全局面發展의열쇠를잡고잇는것은中國의時局을諦視하는者의 一般으로認하는바이다그러나郭松齡의成敗는매우疑問인者이엇섯다 그의七萬餘를算하는麾下의內部의結束이 매우堅固치못한者잇섯고 그의直時부터全滅或은亡命의即行을傳하든張作霖이 오히려頑戰을繼續할形勢이엇고 李景林의國民軍에對한地位가 반듯이逆轉할事情이잇스며 熱河方面으로부터 東進할 闕朝璽 湯玉麟 等의部隊가 또한 郭軍의 側面을威脅할바잇섯스니 이는郭軍의不利한 主되는原因이엇섯고 馮玉祥軍이 비록熱河의承德府一帶를占領하엿다하나 京津鐵道를支配치못하는以上急速히郭軍과共同한戰鬪를實現키어렵은일이엇고 張宗昌 邢士廉等이山東을維持하고 或은海路로부터營口로赴援하는等事는 奉軍의士氣도하야금 오히려郭軍을維持할수잇슴을因함이엇섯다그러나이제그의戰局은 매우變轉하고政情이 쌀아서趨遷하는바잇고저한다

四

最近의入電은 五日以來郭松齡軍이 急激한攻勢를 取하야 거의無人의 境을進行함과가티 連山 錦州의諸地를陷落하고退却에退却을거듭하는奉軍은 자못形勢를挽回키어렵슬것을報하엿스니 奉張의沒落이비록時期의問題이나 오히려多少의頑戰할餘地가잇슬것을預測하얏든데比하야 적이意外인感이업지안햇섯다 奉軍大敗의原因이一時投降을裝하얏든 郭軍部隊의背後로서의 攻擊에原因한다하거니와 이와가티奉張의運命이往年의段祺瑞 吳佩孚諸人의沒落하든經路를밟어 土崩하는形勢다시收拾할이업는것은 비록中國에잇서서의恒例이나 오히려一層의急速함을늣길者잇스니그는奉張이 비록形勢매우不利하나 그多年坐鎭하든 根據地에잇서서 諸般의策動이 오히려할만한者잇슬것을推斷함이엇섯다 그러나이제奉張은 現職을辭하고 出戰軍은모다原駐地에돌려보내기를 決定하엿다하니 만일事實이면그變轉하는形勢자못決定的인者잇다할것이다

五

吾人은이제後難을먼저하야그의一般을揣摩코저하는아니한다그러나奉張이敗退한後 東三省을掌握할者는누구일가? 이미果報하든 張學良의推戴이냐? 郭松齡의自立이냐? 一時의形式이如何하엿든지 郭氏가그實權을掌握하게될것은 必然한일이어니와 郭氏의奉派諸將과의關係와 또는그와馮氏의國民軍 및李景林軍等에對한關係는 또한반듯이現狀대로만表準할수업고장차다시 不少한波瀾이잇슬것이며特殊한利權과 居留民의生命財産의保護를理由로써 出兵을斷行코자하는 日本의態度도매우重要한問題이다 吾人은郭氏와日本의軍閥間에어떠한默契가잇섯든가를推測할수잇든바이엇섯다 何如間北中國의戰亂은아즉도 매우紛糾한諸事態의續出할것을豫期케한다

『奉天이危急하면 日本軍隊出動』
居留民을保護하겟다는 ◇宇垣陸相談

(東京電) 宇垣陸相은語하되錦州와奉天으로四、五百里의距離가잇서奉天軍이俄然히脅威되지는안을터이로되白川關東軍司令官에게命하야遼陽과奉天間에잇는駐屯軍으로하야금居留民保護를하게하얏스나萬一奉天附近에서交戰하야集團的으로奉天에軍隊가入城하는일이잇스면即時出兵하야保護警戒를하지안을수업다

日外相對策協議
中國時局問題로 加藤首相을訪問하고

(東京電) 對中國問題에對하야幣原外相은七日午後零時半에加藤首相을訪問하고最近의情報를傳하고對策을協議하얏더라

貴族院議員도 對中問題協議
外相을訪問하고

(東京電) 張作霖氏의沒落으로中國問題는益益紛糾하야졋슴으로研究會富谷鈴太郎茶話會石塚英藏公正會大井成元의三氏는七日午後三時外相을訪問하고對中問題에對하야種種의意見을交換하엿더라

內山領事虛行
調停次로갓다가

(奉天電) 六日調停使로서는內山領事一行은六日夜에新民屯에서一泊하고郭軍使으로向하랴하나奉天軍이退却할때鐵橋를破壞하얏슴으로前進할수업서七日午後二時半에헛되히歸來할터임으로最後의戰線인凌河附近에서又一戰을免치못할模樣이더라

郭松齡軍의 奉天軍行動監視
郭軍突然히進軍中止

(奉天電) 破竹의勢로進軍을開始한郭松齡軍은一方으로奉天軍의行動을監視하는듯이行進을中止하야錦州의東에서兩軍對峙中이더라

奉軍凌河에서決戰乎
張作相七日夜에吉林行

(東京電) 張作相은七日夜吉林으로向하야出發하기로되엇는데其用務는郭軍은今夜頃에全線所有部隊가錦州로入城하야얼마간進擊할模樣도업고奉天軍도이곳을最後로모든軍需彈藥을凌河의最後戰線으로送하야漸次軍備가充實하여졋슴으로吉林殘留兵의出動을식힘과同時에오래동안戰線에잇섯슴으로民情視察을兼한것으로서玆二三日中에는張郭兩軍의運命을賭할最後激戰이잇스리라더라

루텔氏再組閣?
獨逸後繼內閣問題

(나우엔五日發) 大統領은組閣問題에關하야各政黨首領과協議할터인데七日가지에는루텔博士에게再次組閣을命할터이오各政黨首領들도루텔의再出에는反對치아니할것으로信하더라

一日現在郵貯總額

十二月一日現在朝鮮郵便貯金은人員百七十一萬九千五百二十五人金額二千百二十六萬八百二十四圓인데此中에日本人四十七萬五百七十四人一千八百四十五萬七千五百五十五圓朝鮮人百二十四萬三千九百五十一人二百八十一萬三千二百六十九圓이더라

馮氏의時局聲明
左傾派와는絕緣

(北京六日發) 馮玉祥은左와如한意志를表明하엿더라
一、段執政을擁護하고內閣을改造하는問題에對하야는中央政府를支持함
一、關稅問題에關하야는無條件自主를主張함
一、民黨中右傾派와는接觸하나左傾派와는絕緣할것

國民軍第四師
楊村에出動

(北京七日發) 齊齊哈爾都統張士貴은國民軍第四師司令으로서楊村에出動하엿더라

嶺東記者大會
言論集會出版其他大衆運動에關한諸問題討議

旣報準備中이던嶺東記者大會는去一日江陵邑佛敎布敎堂內에서開會하고日本無産政黨結黨式에祝電을發送한後左記案을決議하얏다더라
◇決議案
一、言論權威에關한件
二、言論集會結社出版法에關한件
三、記事에關한件
四、大衆運動에關한件(削除)
五、本社對支分局待遇改善에關한件
六、新聞雜誌郵送에關한件
七、嶺東記者統一常設機關에關한件

講演과懇親會 同日午後七時에同大會場所에서新聞講演會를開催하고閉會後鎣萊館에서懇親會를開하고地方狀況과各支局進行方針에對한圓滿한討議가잇섯다더라(江陵)

◇任員
執行委員候補 南炳台 李鏞錫 金秀烈 崔龍燮 資漢祚 南炳寅 張興卜 李仲基 南哲洙 文達 金洛淵 徐守源 金永熙 李逢春 楊哲周(襄川)

金堤中學期成會支部

累報=全北金堤中學期成會支部의成立된곳과그任員은如左하다더라
▲月村面支部長崔宰徹財政委員金賢基幹事趙判鉉外三人贊助員鄭聖模外十餘人▲竹山面支部長丁平三財政委員金錫安一善、李伯仁幹事朴彩圭、李海順外一人贊助員張允秉、朴允圭、崔秉濬▲白山面支部長尹相晩財政委員安尙默幹事朴賢楨、安鍾喆外二人贊助員姜鎔容、尹泰炳外二十餘人▲下離面支部長金泰祏財政委員金丙烈、金性在幹事姜仁哲外數人贊助員各區長과協議員▲草處面支部長許橡財政委員宋敏鎬幹事李在鎬、金日永、李邦奎贊助員各區長과各協議員▲白鷗面支部長金演梢財政委員李承浩幹事各區長十七人贊助員二十一人(金堤)

鐵原邑
敎科指定販賣
遲延으로不便

江原道鐵原郡邑內에는約一個月前부터國定敎科書指定販賣人이休業以來로于今外지販賣人의指定이無하야關係者는不便이多하다는데從前가트면如斯히遲延될事情이無할것인데今番에는新販賣指定을受하랴는者多하야競爭關係로遲延됨이나안인가하야當地人士는注目한다더라

豐山小作人會
出張所創立

慶北醴泉郡上下里二面大部分이小作人임으로小作團體組織의必要를覺醒하고當地股豐俱樂部員南炳寅金永熙諸氏가雅備를繼續하야오던바去四日下里面愚谷洞醴泉劇院內에서創立總會를開催하얏는데會衆이五十餘名에達하엿고名稱에對하야金永熙南炳寅氏等은豐山小作人會出張所라하자하고醴泉新興靑年會의黃柄奎具滋益金相起氏等은「股豐小作人會」라는獨立團體로하자는兩論이잇섯다가畢竟豐山小作人會出張所로可決되엇스며趣旨說明과會則報告를마친後左記와如히任員選擧及討議가잇섯다더라
◇決議事項
一、地稅及附加金一切는小作人이負擔치아니할事
一、地主의賦役에不服할事
一、金肥는施行할時는半分式負擔할事
一、地主의無理한小作契約에는絕對不應할지며會前부터小作契約을締結한小作權은解除할事
一、本會員은會員이耕作하던土地를地主가罷히小作權을移動할境遇에는該小作權을引受치아니할事但小作人의同意가有할時는此限에不在함
一、農業改良耕地農具打租共種子選擇及其他改良을獎勵할事
一、農民의常識을啓發케할事

國勢調査後 各地人口

十月一日現在國勢調査後各地戶口는如左하다더라

淸道郡 戶口는 戶數一萬六千九百七十戶人口男四萬五千四百人女四萬四千三百九十一人合計八萬九千七百九十一人(淸道)

舒山郡 戶口는如左한바大正三十年度調査에比하야約七千名이增加하얏더라

面名	世帶	人口男	人口女
舒川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南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東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華陽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麒山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韓山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時草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文山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川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庇仁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舒川)

慶尙北 道의世帶數와人口는左記와如하다는바大正十三年末現在에比較하면世帶數가三萬四千七百餘人口가十五萬九千七百餘人이增加되엿다더라
世帶數 四十三萬九千五百餘
人口 二百卅二萬九千六百餘
(大邱)

錦山郡 戶口는左와如하다더라
▲男三三、九二四女三五、八五二計六九、七七六▲日本人男一八〇女一三六計三一六▲中國人男七五女六計八一
◇各面別人口
▲錦山面男四、三五四女四、〇二一計八、三七五▲錦城面男三、六七〇女三、四八〇計七、一五〇▲濟原面男三、六八六女三、五六〇計七、二四六▲富利面男三、七一〇女三、七〇七計七、四一七▲郡北面男三、一六五女二、九五九計六、一二四▲西一面男二、六三八女二、五八三計五、二二一▲南二面男三、九八三女三、六八一計七、六六四▲珍山面男四、〇〇二女三、五五七計七、五五九▲福壽面男三、六七二女三、四五八計七、一三〇▲秋富面男三、二二七女三、〇六〇計六、二八七 總計男三六、一〇七女三四、〇六三計七〇、一七〇(錦山)

義州郡 戶口는十四萬六千은되리라고한것이十五萬五千三百餘에達하엿다는바昨年調査에比하면一萬三千餘名의增加라하며一萬以上의面은義州、古津、古館、光城、水鎭、古寧朔、枇峴面이라더라(義州)

第一線同盟例會

太田第一線同盟에서는忠南保寧東亞日報支局안에서來十二日例會를開催한다는바一般會員은만히出席하기를바란다하며今般例會에는重大한討議事項이만타더라(太田)

慶山靑年總會

慶山靑年會에서는去六日臨時總會를開催하고左記任員을改選하고其他將來方針에對하야여러가지를決議하얏다더라
◇改選任員
會長張漢翊副會長朴能俊總務姜際俊智育部長崔泰璽體育部長安泰贊德育部長金基陽書記白富興會計安泰贊幹事鄭鍾珍外三人評議員李相鎬外七人(大邱)

『돔보리』畊作奬勵

忠南燕岐郡一圓은農蠶地로有名한곳임으로燕岐郡農會에서는農事改良에努力하던中인데畜의農事는良好한成績을得하얏스나田畓은良好치못하야一反步에大麥一石의收穫이難함으로燕岐郡農會에서는昨年에試驗的으로『돔보리』라는種子를三段可量되는田에播種하는同時肥料도適當히施行하엿든바一段에麥四石의收穫을엇게되야今年에는各面模範作田을指定하야畊作케하얏는데作者에게硫酸五號라는肥料一叺(正味十貫入)式을無料로寄贈하얏다는데明春의收穫이良好하면大大的으로宣傳할計劃이라더라(鳥致院)

新南市
市場積極運動

京義線南市驛新南市는逐年發展됨을따다市民大會를열고市場期成會를組織하야運動한바道當局에서도事務員을出張하야仔細한狀況을調査하얏는데經率히新南市市場을許可하면新義州市는永永發展을持續케하는것이至當한생각에對한生活安定에對하야根本方針을研究치아니하면안될것임으로出張員은市場延長이良策이라는意思를表示하고市民代表는地方에共存共榮을爲하야진심으로希望하는바라고供述하얏는데龍南市民의諒解가有하면조커니와若不然하면市場持久戰을繼續하야積極的進行方策을取할터이라더라(龍川)

大谷革新總會

晋州大谷靑年會에서는創立以後何等의活動과施設이無하야一般會員은自體의無能함을慨歎하고去四日同面佳亭里講習所에서革新總會를開催하고經過報告와規約通過가잇슨後來賓으로晋州靑年會朴台弘氏와本報支局朴英斅氏等의熱烈한祝辭가잇섯고左記委員을改選하얏다더라(晋州)
執行委員長河鳳楨 庶務委員姜澤禎 鄭基旭 財務河鳳楨 敎育鄭鍾海 調査朴鍾璉 成煥律 體育李爾基

●모히藥者斂跡 牙山郡屯浦面所南里에는去四五年以來로二三人의모히患者가有하야各處로徘徊한다는消息을探知한屯浦地方警察은暗暗裡에取締가嚴重한結果近日은一個人의患者도볼수업다하며地方警察은連續警戒中이더라(屯浦)

園藝農蠶講演
七日間平原

平原有志李浩魯晋義根諸氏는乙丑三月四日平原果樹同業會를組織하고二百餘園藝家에對하야于今것만은奬勵가잇서오던本月二日은講師農學士金志侃同米國人柳都氏를招聘하야邑內梨花園에서一週間을園藝農業林業其他織業等의講演을開催할터인데聽衆에依하야場所는耶蘇敎禮拜堂으로變更하리라더라(平原)

平原醫生會組織

平原醫生文完英李寅奎氏는漢方醫學을一層더研究키爲하야去一日平原警察署演武場에서醫生學會를組織하고同午後에閉會하엿다는데任員은如左하다더라 會長文完英副會長李寅奎總務崔鳳瑞(平原)

林谷昇格祝賀

湖南線林谷驛은全南光州郡西端林谷面中央에在한要驛인데湖南線開通以來簡易驛으로取扱하야一般住民의不便은勿論經濟方面의不利한點이不少하야一般面民은鐵道當局에交涉한結果今年十一月一日부터普通驛으로昇格이되야去五日에林谷面林谷公立普通學校內에서祝賀式을盛大히擧行하얏다더라(松汀)

橫城藥水有望

江原道橫城郡井谷面下安興里下岬岩石間에湧出하는藥水는同里에居住하는韓奇洙씨가大正十一年三月十二日夜一夢을得한바前記岩石間에特異한藥水가有하니一次試用하라는一老女子에指示가有함으로韓氏는數月前부터眼疾이有하든次右와如한夢事가有함으로一次其藥水를探하야洗眼한結果奇效가有함으로此事實이傳播되야新聞에外지報道되야病者等이多數試用한바男子淋疾女子帶下症等消滯其他胸痛에無不神效인故로各方面에서病者가雲集한다는데井谷面에서는漸次實效를보아藥水를特히修保하야將來一般病者와其他來觀人에便宜를圖할事를研究中이라더라(橫城)

井谷面所新築

數月前부터江原道橫城郡井谷面事務所를建築中이던바不日間竣功을告할터인데그經費는面民一般의自擔醵蓄하엿든結果로橫城第一의雄壯한建物이되리라더라(橫城)

洪原郡民大會
三寸輪車再使用運動

咸南洪原郡에서는今春期부터隣郡과合同하야農村에서在來使用하든三寸輪荷牛車를明年度부터는全廢하고四寸荷牛車를使用하라함으로經濟가許諾지아니하며道路가整理되지못함도不拘하고四寸車를經營한者가만흐나弱牛를所有한者는自己牛車를두고도他人의三寸車를빌게되야怨聲이漲天함으로有志들은道當局으로부터警察部外지陳情하얏다함은本報에累報한바어니와去五日午後二時부터同郡天道敎宗理院內에서同郡民大會를開催하고左記와如한任員選擧와決議가有하얏다더라
◇任員(中央實行委員) 金允瓚 洪鍾國 崔濟誠 韓承教 洪性龍 (財務)洪性龍
◇決議
一、同會經費는約百二十五圓으로하고各會員에게會金五錢式徵收充用키로할事
一、今月十五日以內로各面贊成委員은會費를徵收할事
一、今月十五日以後中央實行委員中으로警察部及總督府에陳情員을派送할事(洪原)

長興農民共濟會

全南長興農民共濟會가創立된지三個星霜에會館이업음을一大遺憾으로생각하던바常務委員인朴東日黃仲伊兩氏의發起와會員의贊成으로今年春에會館을南門外에新築하고諸般事務를繼續하든中此後組織的行動과新事業을進就코자本月八日總會를開催한다더라(長興)

寶城郡守에게

投稿歡迎 一行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君이여! 前日寶城小作會創立總會席上에서祝辭인지訓示인자不得要領인君의말가운데에曲解와妄言의一節이有하기一言으로써君의反省을促하는바이다
◇君은日今日決議한모든條件을贊成하나其中小作料分配四割은不可하다하얏지?當初小作會라는것이五六年前에京城에서먼저組織되여서그대에도五割을主唱하엿슴을아니냐 어데로보던지四割[illegible]하면너무나地主의損害인줄그要求는無理하다고하엿다
◇君이여!오히려立場을밧굴것도업시所謂爲政當局者로自處하고冷靜히생각하여보아라五六年前京城에서組織된小作會는그位置가 直接農業地가아닌都市이고그人物이直接農業의體驗이업는案頭書生들인아니라
◇그뻬그時期에는五割이合理이엿는지도모르거니와眞理를探究하는人間性!社會科學이漸漸發達됨을따라今日은四割이合理이고明日은三割再明日은二割이合理일것이며또는將來에잇서서小作制度外지永永업서질날이잇지아니할것을누가保障하랴 또는四割은地主의損害가甚하다 하는무엇을根據함이냐?地主업는영은잇슬수가잇스나小作人업는영은잇슬수가업다다시말하면小作人이업스면영은망될價値를失할것이다
◇君에게牛耳讀經인科學的理解를云謂하는것보다所謂農事改良이니産米增殖이니하는看板政策으로보더라도根本問題의骨子인小作人保護에置重치안코면捕風捉影의徒勞에不過할것을記憶하여라
◇그러도一地方長官으로서그가無冥한頭腦의所有者이거든차라리尸位素餐으로空廳閒卓에안저서國帑장사나着實히하지나烈風急潮의世界大勢에順應하야正義人道를獅子吼하는公會席上에와서妄發妄語을喋喋하지말기를付托하여둔다(一農民)

西鐘公普增築과 梁金南氏의特志

鳳山郡西鍾面公普通學校에서는學校當局과學父兄及一般有志人士들이十一月二十九日學校에서會集한後敎室增築問題로長時間討議하는中當地藥局梁金南氏가그經費의半額을負擔하겟다自願하엿슴으로不遠間工事에着手할터이라하며明年부터는學年延長이되리라더라(沙里院)

淸道勞働夜學

淸道郡雲門面孔岩洞自覺會主催로去一日부터私立消東學校에서夜學會를開催하고甲乙二組에分하야敎授한다는데甲組를修了하면普通學校三學年修業資格을엇도록한다는바夜學生은現在四十名에達하엿다고(淸道)

養實學院寄附

批峴面에서成績良好 義州養實學院寄附金募集에對하야各處에서寄付가湊集한다함은既報한바이니와今般募集代表劉如大氏가義州郡批峴面에出張하야活動한바同面은原來富豪도만치못한地方으로서特히敎育界를爲하야有志者들이熱誠同情함으로밤서募集된金額이約千圓에達하엿다더라(義州)

穀商大會와 手數料問題

旣報=元山及咸興에서全國穀物商大會를開催함에對하야此의財源을得하기爲하야穀物檢查時에別로히手數料를徵收할作으로過般來當業者間의種種의問題로議論하든바元山에서는一部分의不贊成者가有하야아즉如何한決定이無하나新興以北의各地에서는此를承諾하얏는데唯獨元山에서만異論이잇는것은좀如何하야過般商業會議所에同業者가集合되야此問題를協議하라하얏스나出席者小數로流會되엇슴으로今回商業會議所의斡旋으로當業者에게書面으로서同意를求할터이라더라(元山)

地方學界

順川勞働夜學

平南順川에서는今年春期부터當地有志金晶泳趙昌業三氏가天道敎區室을校室로借用하야風雨를

金弘喆氏覺醒

鳳山郡洞仙面彰德學校는經費困難으로敎員을充分히採用치못하든바過去에는頑固로子弟를學校에入學도못하게하던金弘喆氏는子弟를學校에入學케하는同時敎員一人을專擔하겟다고自請하엿슴으로學校職員一同과一般人士는氏의覺醒을稱贊한다더라(沙里院)

北靑勞働夜學

北靑郡北靑勞働組合勞働夜學所는去一日부터開學한바兩雪을不顧하고學生이多數出席하야每夜大盛況을이룬다더라(北靑)

全北靑主校大會

北靑郡內各地耶蘇敎會에서는本月十七日에主日學校聯合大會를北靑東里禮拜堂에서開催한다더라(北靑)

豐南晝夜勞學

咸南永興郡順寧面豐南里有志張秉璟文星振張東郁等三氏의協力으로每年多季를利用하야勞働夜學을開催하고農民의智識啓發에努力하든바今年은巨額의金錢을醵出하야一層擴張하고無産兒童과勞農者를爲하야晝夜學部를設하고二週日前부터開學하얏는데敎授는永興農業專修學校出身石重喆氏가擔任하며就學生은四十名以上에達하얏다더라(永興)

淸道夜學開催

淸道郡雲門面義塾에서는大川自覺會主催로勞働夜學을開始하얏는데生徒는五十名에達하얏고朴輔鉉朴環然朴在逵君이各其敎授를擔任하야熱心指導한다고(淸道)

特志美行

韓泳俊氏

平安北道渭原郡密山面雲邑洞에사는韓泳俊氏는郡內極貧者中八十九名에게金一百五十九圓三十一錢을各面長에게依託하야한사람에게一圓七十九錢式分給하엿슴으로一般은稱揚不已한다고(義州)

崔南立氏

全南光州北門通에居住하는崔南立氏는當地培英學校에通學하는文羅烈張啓斗李玉順三學生이學費困難으로中途退學케됨을보고前記學生이同校卒業하기外지의學費를支拂키로하얏더라(光州)

洪富春氏

全北錦山郡錦山面中島里洪富春氏는自己父親이生存하야布木商經營時에外上價를全部岩滅하여주엇다더라(錦山)

鄭安民氏

全南羅州郡羅州面鄭安民氏는每年名節에附近洞民에게米穀을施與하든바今年秋夕에도西門町貧民八十七戶三百十四名에게各各白米一斗式給與하얏고勞農共榮會에서制定한小作條件에도大部分承諾하얏스며平洞面公山面本良面에는各各正租五石式을分給하야小作人間哀慶相助의基本을作케하얏든바今年에는各面正租가四十餘石에達하얏다더라(羅州)

金敬煥氏

全羅北道茂朱郡茂朱面邑內里金敬煥氏는七萬餘圓財産으로郡內實業家인바時公益事業이든지社會事業이든지慈善事業에精神的努力하야每年巨大한金額을投하야或은貧民救濟或은公共團體에無上한功勞를呈하고大正十三年度에는六百餘圓의巨額으로同郡內島里와邑內里間二里距里되는岩石險路를改築하야住民의交通上便利를與하얏고今年十一月에는同郡赤裳面內에所有土地가風災로因하야小作料가例年倍減됨도不拘하고小作人의處地와生活狀態를閔憐하게생각하야千二町步에對한地稅一、二期分九百六十餘圓을自納하기로하엿다더라(茂朱)

李善哲氏

金浦郡郡內面豐舞里李善哲氏는今年各小作人의情狀을살펴서小作料를全部免除하야준곳이만타더라(金浦)

細川農場

潭陽郡細時에本農場을두고松汀里에農場出張所를둔細川農場에서는四割乃至三割五分을徵收하얏슴으로小作人은非常히깃버하야農場主를表彰하기로協議하엿다더라(松汀)

天安主日歌劇

天安敎會에서는秋收感謝主日을盛況으로지냇는데去月二十九日에는同敎會主日學校主催로歌劇大會를開하고二十餘種目으로四百餘觀衆에게無限한感想을주엇고滿州宣敎費를爲하야當日義捐된것이八十餘圓에達하엿다더라(天安)

●新興校紀念式 去二日全北全州新興學校職員一同과生徒全般은同校創立의十七週年紀念式을同校大講堂內에서盛大히擧行하얏다더라(全州)

釜谷夜學開始

靑松郡靑松面釜谷洞에서는朴致信外三氏의發起로去二日夜부터同洞權楠齋氏家에서夜學을開始한바學生은男女共四十名이엇스며敎師는同里朴命壽氏外一人이라고(靑松)

地方經濟

南浦附近의年末經濟
例年보다比較的好況

鎭南浦三和金融組合의調查에依하면鎭南浦를中心으로한附近農村龍岡郡一帶의今年末金融經濟概況은左記와如하다더라
一、一般貨物의移動狀況 穀價가下落됨에도不拘하고農家에서는稅金其他決濟資金을要하게되야各市場의穀物出廻와集散은大盛況을呈하며特히十一月下旬以降김장時期에入하야는白菜大根等野菜와食鹽類의賣買가盛行함을따라近來稀有의殷盛을呈하얏섯고
二、商工業盛衰狀況 附近龍岡郡一帶의農作이平年作以上됨을따라地方農家의購買力이增加되야鎭南浦市內의商工業者도一般으로活氣를呈하얏고
三、金融繁閑及預貸增減事項 地方農作이前項에述한바와가티豐作에近하엿고從하야農村方面의金融도近年에稀有한繁昌을보게됨을따라當地三和金融組合의貸出金回收成績이良好할뿐아니라前月에比하야貸付金에二千餘圓預金에六千七百二十一圓이各各增加를示하얏고
四、其他一般의經濟概況 主要生活品物의價格은白米四圓小米一圓六十五錢小豆三圓三十錢大豆一圓八十錢食鹽四十錢木炭一圓六十錢薪八圓等이다(鎭南浦)

五日元山物價

元山商主組合調査에依한去五日元山市場物價는如左하더라
精米一斗上品四圓二十錢白米一斗上品三圓六十錢同中品三圓五十錢粟一斗上品二圓八十錢同中品二圓六十錢粟一斗上品二圓二十錢同中品二圓五十錢玄米一斗上品二圓七十錢同中品二圓五十錢蕎麥一斗上品二圓六十錢大豆一斗上品二圓同中品一圓九十錢小豆一斗上品二圓六十錢同中品二圓四十錢小麥一斗上品二圓同中品一圓八十錢明太二十尾上品八十錢同中品六十錢同下品五十五錢生牛牡一頭中品八十圓生牛牝一頭上品九十三圓同中品八十五圓同下品三十三圓豚在來種一頭上品二十圓同中品十五圓同下品七圓豚改良種一頭上品二十四圓同中品十五圓同下品八圓鷄在來種一羽上品八十錢同中品六十錢同下品四十錢鷄改良種一羽上品一圓同中品八十錢同下品五十錢鷄卵一個上品三錢同中品二錢五厘

元山稅關收入

十一月中元山稅關支署의收入은外國으로부터의輸入稅가九千三百七十九圓이요日本으로의輸入稅가四萬七千二百五十圓이며出港稅가四十二圓酒稅가二千百六十六圓砂糖消費稅가四千二百三十五圓稅關雜收入이一千九百九十三圓合計六萬五千六十五圓이라더라(元山)

元山穀物賣向別

元山港으로부터十一月中輸出된穀物의賣向地는玄米六千九百十一石에對하야大阪에一千四百三十五石敦賀에一千七百九十石安津에一千六百五十五石이요千石以下로는名古屋敦賀舞鶴神戶等地이며白米는總數三千三百七十八石으로賣向地는吉津에一千七百五十七石이五千石以下로名古屋敦賀舞鶴大阪等地이요大豆는二萬七千八百十二石인데敦賀에九千四百二十二石을筆頭로神戶에五千八百九十七石大阪三千二百四十一石伏木에二千六百七十二石下關에二千四百八十六石宮津에一千石等이요千石以下는小豆島에四百六十石以下는舞鶴宇品名古屋芝浦七尾等地라더라(元山)

城津近海點魚

咸北城津近海의點魚漁獲은本年中盛況을呈하야十月부터十一月二十日外지日本各地方에輸出한點魚는六千七百七十四個價格十一萬四千三百餘圓點魚油三萬四千一百二十鑵價格十一萬三千五百餘圓點魚五千四百五十八箱價格二十七萬六千九百餘圓合計二十七萬六千九百餘圓에達하엿는데本年中總輸出高六十萬圓에比하면點魚의輸出이畧半數를占作하엿다더라(元山)

新浦明太漁狀況

咸南新浦에서는客月中旬부터明太漁業에着手하야오던바今日外지漁業船數는一百五六十隻中漁業試驗發動船이十餘隻이나되고水揚高는自六駄乃至六十餘駄에達하얏고現場時勢는生明太魚一駄에七十圓干明太魚一駄五十圓生明太卵五貫入一樽에三十五錢乃至十五錢明太白子五貫入一樽에十錢乃至十五錢明太腸十貫入一樽에八十五錢乃至九十錢鰈魚一級에三十錢乃至八十錢烏賊魚生品五十錢乃至六十錢干品은八十錢鯖魚一級二圓靑魚一拔에八圓乃至十一圓이고明太魚는主로乾燥하나氣候溫暖으로乾燥不良의念慮가有하야던바本月三日午後七時明부터卒寒되야一般漁業者의好評이莫甚하다더라(新浦)

地方人事消息

▲金完燮氏(大邱辯護士)京町一丁目八十四番地新築事務所로移轉(大邱)

◇寸鐵◇

【抱川】 近日抱川에는어데서서貿易을하여왓는지前에보지못하든妓生이날마다늘어간다나!이것이무슨兆朕?
◇
【海州】 靑年某는妓生某賓會에서妓某에게一金千兩을寄贈하얏다고엇던險口는白이것이花代報償이란말인가하고우섯다
◇
【陽德】 新邑女子界에는金齒가大流行이되야 돈한푼업는學生이에金齒를해박고每日幾次式市內를巡廻하는貌樣이可觀?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Dec. 8th, 1925.

ENGLISH FOR STUDENTS.

TIME.

Reckoning from the birth of Christ, we are living in the 20th century of the Christian era. The 19th century ended December 31, 1900 (read: nineteen hundred), at midnight, and the next day, January 1, 1901 (nineteen one), was the first day of the 20th century. A hundred years make a century. Ten years are a decade.

There are 12 months or 365 days in a year. A leap-year, tho, has one day more or 366 in all; the extra day is added to February. Leap-year comes once every four years, with the exception of years that can be divided by 100 but not by 400.

Thirty days have September,
April, June and November;
To January add another day,
Also to August, March and May,
July, October and Decemder,
All there have thirty-one, remember! —
To February twenty-eight assign
And in leap-year twenty-nine.

There are 7 days in a week: 1 day of rest and 6 working days or week-days. Their names ar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There are 60 seconds in a minute, 60 minutes in an hour and 24 hours in a day. Every day runs from midnight to midnight and includes the night (before sunrise), the morning, the forenoon, noon, the afternoon and the evening. There may or may not be a distinction made between the morning and the forenoon; the morning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the early part of the forenoon. For some people the evening extends from sunset to bedtime; other people consider the evening to commence a couple of hours before sundown; in the southern states it begins at noon. —From "The little Yankee"

英文欄
學生英語

京城府內에 新鑿井五十處
명년에움물오십개를파고 공동묘디이만평을늘인다
京城府衛生課明年豫算

경성부각과(各課)래년도예산은 방금 각과에서 부주히편성중인대 그내용에 대하야는 아죽 대비밀에 부처 사업(事業)예산(豫算)등을 탐지할수 업스나 각과중 위생과(衛生課)가 최근탁상일중에 데일 몬저 그예산과 사업에관한 서류를 작성하야 예산회의(豫算會議)에 데출하리라는바 이제 동과에서 래년도사업으로 위선계획한것은

一、傳染病(바라지부스)豫防에 對한消毒에關한件
一、井戶鑿井에關한件
一、共同墓地增域에關한件
一、火葬場에關한件
一、汚物處理場移轉에關한件

등이 며개 그중요한것으로 그중 움물(井戶)을 늘이는 리유는 수도(水道)가 경성부민이 사용하기에 부족할뿐아니라 세민계급(細民階級)에서는 아죽까지도 그 경제와 및관습이 수도의사용을 허락지아니하야 움물을 사용하는자 또한적지아니함으로 종래의 움물을완전히 설비하는일변 가장 위생뎍인 움물오십개를 더파는것이라하며 공동묘디(共同墓地)는 수텰리(水鐵里)에약 이만평을느릴터이라는바 종래경성시민의일년사망률(死亡率)은 대개륙천여명에달하는터로 그중 오천여명이 조선인인데 조선인은대개화장(火葬)를리용치안코 매장(埋葬)의 방법을 리용함으로 오천명중약삼분의이를 공동묘디에 매장케됨으로 인하야 나날히 묘디의면적이 주러드는터인중 현재에는 자못묘디의여유가 업다하여도 파언이안인 경우임으로 부득이수텰리에 묘디를 늘이게된 것이라하며 화장장(火葬場)에 관한것이란 방금시민의 사망자를위하야 설치된화장장은 서대문밧과 광희문밧의두곳에 잇스나 그설비가완전치못한 까닭에 경비는다른곳보다 배가들고도 조흔성적을보지못하는 형편임으로 두곳을업새고 한곳에합치드라도 가장완전한것을 만드는동시에 그장소를선택할 방법에관한것 이라하며 오물처치장(汚物處置場)에 관한건이란 그옴길장소에 대한것이나 아죽후보디(候補地)를 작뎡치아니하엿다는데 상술한바에대하야 위생과 **당국자는** 말하기를 수도가잇슴에불구하고 움물을느린다함은 시대에역행하는 늣김이업잔이나 세민을위한 일이니까 도로혀못그럽지 안은줄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인 시민제군에게 바랄것은 될수 잇는대로 화장장을 리용하야 묘디가 느러가지안토록 하여 달라는것인바 명년도에 수텰리묘디를 이만평이나 느린다 하드라도 그것은불과 사년이면 또매장할여디가 업게될것 이올시다 하더라

親日派銃殺한 光復團員李永植
신병으로고향에왓다가피착

희천군 진면장평동(熙川郡眞面長坪洞)에본적을둔장인진(張仁珍)(四二)은 여덟십년사월에 중국안도현(中國安圖縣)에근거를두고 조선독립을위하야 활동하는 광복단(光復團)에가입하야 그해구월에대장리영식(隊長李永植)이하팔인과가티 조선에 드러와서 함남단천군(咸南端川郡)갑흔산골에 잠복하여 암중비약하야 수천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엿스며 그곳 친일파 차모(車某)의집을습격하야 「너희는 우리의행동을 일본관헌에게 밀고하는자이니 용서할수업다」하야 총살한후 십일년사월부터 반신불수(半身不遂)라는병에걸려 얼마전에 긔고 본적디희천군에 도라와잇든중 권긔한사실이 발각되얏슴으로 희천경찰서에 톄포되야 엄중한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희주)

一胎三女解産
산모와아이가 모다건강하다

지난삼일 밤열시에 수원성내신풍리(水原城內新豊里)에사는 엄학봉의 안해되는 이십륙세된 김씨는 일태에 삼녀를 순산하엿다는데 산모와아이가다건강하다더라(수원)

京都大學事件 檢擧學生全部釋放
일건서류만은검사국으로 피고들은전부석방되엿다

일본경도대학생(京都大學生)의 불온문서 사건은 칠일오전구시까지 전부석방되엿스며 일건서류만은 경도디방재판소 검사국으로 넘기엇다는데 사건의내용은 불온문서의작성과 과격사상의조직뎍 선뎐등 두가지를중심으로하야 검거취됴한바이나 사실은 그와달리서 해석여하에따러서는 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으로 마칠듯 하다더라(경도뎐보)

去去益甚한 成川郵便配達
개선한다는말뿐이요 실행할줄을모른다고

성천(成川)과평양(平壤)간은 우편물을 자동차로톄송하는 관계로 일반이 만은편익을 바다왓스나 시세의진운과함께 우편물이 격증되엿스며 또한 각종신문의 지분국이 설치된후로는 전보다 두어배나 늘엇는데 따라서 우편국의 사무가 늘엇는바 이제 우편국의 톄송관계를보면 자동차로오는 우편물이 매일십칠관이라는제한이 잇슴으로 삼십관이 넘는우편물은 전부보내지못하게되야 신문들은 이삼일만에 화물자동차(貨物自動車)로운반하야올뿐만아니라 이에대하야 성천우편소(成川郵便所)에 수차나교섭도하엿스나 소장은 곳엇더케 조처하겟다는말뿐이요 더욱이 심하야갈뿐임으로 일반의 분개는날로심하야가는모양이요 이로인하야 일반독자에게 만은불안을주는중인데 또일간당국에교섭코저하는중이다(성천)

井邑訓導給料 년종에는다줄터

전북정읍일군(全北井邑一郡)십개소공보(十個所公普)에서는 생도들의 수업료가 잘들어오지아니하야 교원들의 급료를못준다는사실은 본지에 긔보한바어니와 동군수리동한(李東漢)씨의 자세한 설명을듯건대 동군공보의 금년도총수입예산액은 십만이만일천륙백륙십일원인데 수업료가 이만일천 오백삼십일원인데 수입의 오분지일을 점령하엿고 경상부(經常部)총지출액은 팔만삼천칠백십칠원인데 금년도 호세부가미납액이 일천삼십륙원이오 이긔부호세부가미납액이 삼천이십일원이며 십삼년도수업료미납액이 륙천칠백삼십삼원인데 금년도 미납액이 또팔천사백원이나되고 금년도 소작료미납액이 일천팔백이십삼원인바 합계가 이만팔백사십삼원의 거액임으로 이것을밧어드리기전에는 장차바ㄷ어서 갑을곳이 어만팔백사십삼원의 거액임으로 차바더서 갑을금을 쳐드래도 그 변리를 충당할곳이업슴으로 교원들의 급료를 십일월분은매일 것만 아죽못주엇스나 이제는년말이 되엿슨즉 이상의미납도독촉하고 또빗을내여서라도 봉급은 지불케된다 청산하여야 하겟다고한다 더라(정읍)

海州印工들도
부산인공파업단에동정금

해주(海州)에잇는인쇄직공친목회(印刷職工親睦會)에서는금번 부산인쇄직공 파업단에 대하야 끗까지 싸와이기기를 바라는뜻으로 빈약한주머니를 커마다털어 동정금 륙원사십전을 모하보내엿다더라(해주)

債務防備로 虛僞强盜申告
머리를제손으로밀엇고

원적을강원도녕월군녕월면거운리(江原道寧越郡寧越面巨雲里)에두고 방금정선군신동면례미리(旌善郡新東面禮美里)에서 삼척(三陟)으로 드나들면서 소금장사하는안영호(安英鎬)(三三)는 지난달 이십구일오후 일곱시경에 류혈이 낭자한몸으로 신동면주재소에 나타나서 자긔는본래 소금장사로서 동면고성리(古城里)에서소금을팔고 도라오는중 구리개라는 고개에서 강도두명을만나 이가티란하고 현금십팔원 **칠십전을 빼앗겻다고** 고발한바 동주재소에서는 범인 수색에 착수하며 일변밤을새워가면서 본서에 보고한결과 이급보를접한 정선경찰서에서도 수색에비상한 활동을하든바 의외로 허위의고발임을알고 안 장사 **하노라고** 현금삼십원을 차용하엿는데 상업이 늘어가기는 고사하고 점점줄어서 삼십원 돈을 갑흘길이망연하야 백방으로 생각하든바 일시방비책으로 그와가티하야 방금 정선경찰서에구류중이라더라(정선)

無責任한駐在所 集會屆를返却
자긔네는모른다고

경북안동군풍서농민회(慶北安東郡豊西農民會)에서는지나간삼일에 림시총회를 개최하라고 안동경찰관풍남주재소(豊南駐在所)에 집회계(集會屆)를데출하엿든바 개회할시간을 압두고 몃시간남겨두지아니하고 주재소 순사부장적령(赤嶺)이가와서 『우리는 처리할수업스니 지금부터는 집회계를 직접경찰서로 데출하라』하면서 집회계를 도로퇴각하얏다는데 일반은넘우나 그들의무책임하고 몰상식함을 크게비난한다더라(풍산)

時代日報事件의 洪南杓氏保釋出獄
칠일함흥형무소에서

시대일보필화사건(時代日報筆禍事件)으로 함흥디방법원에서 징역륙개월의 판결언도를 밧고 불복공소한 시대일보 디방부장 홍남표(洪南杓)씨는 칠일에 함흥형무소로부터 보석(保釋)되여출옥하엿더라(함흥뎐보)

市場基地賣渡說로 沈村市民大恐慌
일본인에게팔랴고한다고

황주군 청룡면심촌시장(黃州郡靑龍面沈村市場)은 대정십일년도에 신시장(新市場)을건설한바 교통상편리를 따라 시장은날로확장이되여 금년도에는 근이백호에 달하야 대시장이라할만큼되엿는바 시장설립당시의 시장디주(地主)인 황주군 청룡면소곶리(黃州郡靑龍面小串里)김능석(金能錫)의 소유륙천이백사십평을 시장건설에 대하야 승락서를 엇을때에는 시장도로는무료대부한다는승낙서와 가대(家垈)에대하야서는 일개년에 매평사전오리식 십년간은변동업시 밧겟다는승락서를 작성하야 일반주민에게 주엇슴에불구하고 근년에와서는 엇던심사인지 시장도로까지계산하야 디료를 바다갈뿐아니라 전긔시장권부를 일인에게 매평에 륙십오전식 팔기로하고 발서이권수속까지한다는말이잇는바 그면당국과 일반시민들은 공으로들어가고보면 현재매평의 사전오리식주든것이 몃십전식이될는지도 모를것이라고 만일을념려하야 면당국과 일반시민은 그의대항책을강구중이라는데 문데는장차엇지나될는지 일반은매우공포한다더라(황주)

洛東江邊의 怨魂
小作地엽서짐을悲觀自殺
남의토디어더경작하다가 그것조차업서지게되여서

경북안동군풍산면단호동(慶北安東郡豐山面丹湖洞)압을 거침장변에 수일전엇던시톄(屍體)한아가누어잇는것을 지나가든 사람이발견하고 동리사람들이 계탐하야 그아들이시톄를차저갓다는데 이제그죽엄의내용을드른즉 그사람은 동군서후면대두서동(西後面大豆西洞)에사는최영성(崔永成)(四四)으로 집이적빈하야 안동읍내잇는모(某)의토디삼두락(三斗落)을 어더가지고 경작하야 근근이 목숨을이여오든중 음력지난이일경에 디주가탈환하기로 그땅에대하야 도조사십두를

市外馬場里에 十四歲少年慘殺事件
한지면마장리청계천부근에서이러난참극
열네살된아이를칼로찔러죽인괴괴한사건
◇市內市外에連日殺人事件突發

칠일오전열한시경에 시외고양군한지면마장리(高陽郡漢芝面馬場里)청계천(淸溪川)부근에 나이열네살가량되여보이는 조선아이한명이 목과등을 칼에찔리어 피투성이된채로 무참히피살되야잇는것을 그곳주민이 발견하고 즉시그부근동민에게 그의부모를 차젓스나 찻지못하야 드듸여 부근왕십리경관파출소(往十里派出所)에알리운바 이급보를접한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송하(松下)사법주임이하 형사권부는 송전검사(松前檢事)와도경찰부형사야촌(野村)경부와합의 현장에림장하야 시톄를검시(檢視)한후 즉시 시내소문뎡뎐중환(田中丸)병원에넘기어 해부(解剖)할터이며 범인은 아즉톄포치 못하얏는데 흉행을보아 살인강도인듯하다하며 죽은아이의 소지품은다만 큰두개쁜임으로 주소성명을알수업다더라

漂浪하든自稱寡婦 男便을謀殺未遂
돈오십원을아니준다고 양재물을약에타서먹여

충남연기군 조치원면구시장뎡(燕岐郡鳥致院面舊市場町)고준명(高俊明)의집에서 엇던과부하나가 상당한 남편을구한다는 소문이나기시작하야 여러사람들이 드나들더니 요사이들리는바에 의하면 상당한남편을 구한다든 그과부가 수삼년전부터 공주디방법원 청주지령(公州地方法院淸州支廳)예심계(豫審係)에서 살인미수범으로 **엄중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그과부는즉림분임(林分任)(三一)이라는녀자로 본래상주(尙州)출생인데 함창(咸昌)디방으로 출가하엿섯든바 사실로 과부가되엿는지 알수업스나 전긔한바와가티 조치원으로와서 과부행세를하고 남편을구하다가 음력팔월 초팔일에 그의웃집 아롱산김씨(金氏)의소개로 보은읍내(報恩邑內)사는

전긔김씨의 오라버니되는 김상희(金尙熙)와 백년의가약을 맷게되야 보은으로가고자 할때에 림분임은말하되 고향에서 떠나올때에 채금오십원을 갑지못하고 왓스니 그돈을 갑하달라함으로 승낙하고 그채금을 갑흐려고 고가티보은 자긔고향으로 도라간후 전긔한바 채금 오십원을 갑흐랴고 채권자의 성명을 알려달라하매 림분임은 돈을자긔손에 쥐여주면 자긔가우편으로 부치겟다고함으로 김상희는의심이 업지아니하야 꼭주지아니하엿든바 이것이동긔가되야 하로이틀 싸호다가 팔월십륙일에 이르러 김상희는 몸이병에걸리여 누엇든중 전긔림분임은 돈을달라 하야도 **주지아니** 하고그네로다 몹쓸흉계를 생각하야 병자의약에 양재물을 타서 주엇든바 그약을 먹다가 목이메이여 먹지못하고 고통을 하던차에 **그녀자는** 먼저집이낫던 그녀자의 음해라고 이말이 차차전파되야 청주경찰서에서 알게되야 필경 데포된것이라는데 이말을 들으면 우어보면 나는 한영리로 과부라고하며 도라다 인동하다하며 독약을 먹게된 김상희의 생명은 매우위태한중이라더라(조치원)

武裝團과警官 長時間의交戰
평북희천군동면에서

삼일오후 십이시경에 희천군동면어천동(熙川郡東面魚川洞)에서는 무장단삼명과 희천서원구명과충돌되야 장시간교전하엿는데 무장단측에 한명의전사자를내엿스며 권총한자루와 기타장물수뎜을 압수 당하엿다더라(의주)

沙里院運河
명춘삼월부터긔공

사리원(沙里院)에 운하개착(運河開鑿)한다는것을 여러번보도하엿든바 총독부토목부(總督府土木部)에서는 커간개착할곳을 다측량 하엿슴으로 명년이삼월부터는 어업시 공사에착수하게되엿슴으로 사리원 일반시민은 각곳에시설을 하노라고분주하엿스며 각커인사들은 방금만히 긔대되는터 이라더라(사리원)

酒店女의 議策
대낫에손을얼러가지고 돈을빼앗고발각되얏다

지난 사일밤에 김포경찰서(金浦警察署)도변(渡邊)형사와 리(李)형사들이 관내 모방면으로 어엽분녀자한아를 데포하야 동서류치장에 가두고 방금취됴중이라는데 그녀자는 동군양촌면두건리(同郡陽村面楊山里)주상영업(酒商營業)하는 심문택(沈文澤)첩 차북술(車北述)(三四)이라는녀자로서 항상손에게 부뎡당한행실이만튼중

수일전에 경북안동군남후면 수하동(慶北安東郡南後面水下洞)에본적을두고 행상업으로 기름장사를하는서학수(徐學守)(四九)라는이가 엇던친구를맛나서 전긔녀자의집에서 술을먹든중 그녀자의말이 자긔남편은서울에가고 업다고하며 가진아양을부리며 뎀비는바람에 서학수는 술이얼근하게취한김에 대낫에 운우의꿈을꾸게되엿는데 그녀자는 즉시서학수에게 금전을강청함으로 서씨가 수중에잇는돈 **십오원을** 꺼내여한손에 쥐이고 또한손으로 잔전을꺼내여주려하든중 그녀자는 별안간 달려들어 서씨의손에쥐엇든돈십오원을빼아사가지고 또사오인이안커서 소위잔치술이라고술을먹든중 그녀자의남편되는심문택이가 별안간 달려들어 전긔서씨를색기로동이여노코 간통하얏다는 리유로 무수히 란타하얏다는데 그사실을 김포서에서 알고 전긔녀자를인

그와가티

치한것이라더라

徐學守는飮毒
고향에갈낫이업서서

별항서학수는 돈십오원을 빼앗기고 매사지마진후 김포읍내(金浦邑內)하숙업하는 김성운(金聖雲)의집에와서 하두밤을자고 그이튿날 오전열한시경에 별안간 양재물을먹고 주인집부엌에서 고민하는것을 **즉시발견** 하고대소동을 일으키는동시에 현장에는류혈이 랑자하야 일대비극을 일우엇섯고 응급치료를한결과 다행히생명에는 관계가업섯다는데 그의본처되는 금보하야 그의형되는 서달수(徐達守)가 그이튼날 다리여갓다는데 그의 자살하려든 원인을 드러보건대 그는아주장가건으로 오는음력동지달 **초삼일이** 혼인날인데 그안에 외상갑을다거두어 가지고 자긔고향으로 갈작뎡으로 그와가티 두류하든중 푼푼히모흔돈을 그와가티 다빼앗기고 수중에

自轉車窃盜 광화문통에서
쌀실은자뎐거를두고도망

자긔가탓든 자뎐거를두고서 쌀실은엽헤자뎐거를타고도망한절도가잇다 사실은시내명치뎡(明治町)이뎡목륙십구번디김창인(金昌仁)이가 칠일오전 십시반경에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팔번디 데신국관사에 자뎐거에쌀을싯고가서 집안에 드러간틈에 엇던자가 데일권오백이십호 자뎐거를두고 쌀실은채로 남의자뎐거를타고 도망하엿는데 업서진 자뎐거는 데이권사백팔십팔호이라더라

할수업시 논을팔엇고

내겟다하는 사람이잇스니 이런 에는 소작권을내여노으라한즉 그로그것으로 생명을이어온든 그는 하도어이가업스나 「고향내가 소작하든것이나 한국그때면 주면남에게로하겟다」한다면야는 보증인을세우라하야 누가보증을서주라 하는수업시 단하동 이세상에서비관한나머지 그의 사는 자긔천척한테로가서 보증을서달라겟다하고 떠낫섯는데 삽을 사임이 되도록 도라오지아니함 으로 그의어린아들은 다만오기만바라고 잇다가 이외가흉 보를 접하얏다는데 아마친척되는사람이 보증을 아니서주어서 이를분개하는나머지 세상을커주하야 비관자살한듯하다 더라(풍산)

海州芙蓉堂濫 벌서부터스켓

해주에는 예천부터 일기가몹시 변하야 치웁으로 큰눈이나린후 빙판이 부용당(芙蓉堂)의못이 방사이에얼어부터서 요사이는 날마다 『스켓트』하는학생이 매일 세업시 들어가는데 더구나 부용당은 시가의 한가운데에잇슴으로 보는사람마다 겨울에 한흥미를엇게하며 부용당은 해마다 겨울의 큰운동장이되더라(해주)

便所內의屍體 부내안국동에서
병으로죽은사람

지난륙일오후에 시내안국동(安國洞)구십삼번디 서종식(徐鍾植)의집변소에서 묘령 삼십사오세의남자한명이 죽은것을발견하고 즉시 부근파출소에 계출하야 검시한결과 병으로죽은것이 판명되얏는데 시톄는 경성부령으로 매인다더라(해주)

버도적질하고 살곳이업서라정
인도하엿다더라

함남문천군명효면 원당리(咸南文川郡明孝面元塘里) 정호안(鄭浩安)은 지난구월중순경에 석뎐리(石田里)안논에 잇는벼를 가져다 팔아먹고 이 사십여원어치를 도적질하야다가 팔아먹은것이 판명되야 전긔원당리에서 문천경찰서에 잡혀 취됴를 밧는중 그동안 그는 이태가 극히 빈한하야 이사할곳이 업서서 동리에서도 살수가 업슴으로 무애실리(無愛實里)에다가 집을 사고 요지음 이사하려고 하든차에 전긔무애실리에서도 역시 리민들이 모혀 이러한도적놈은 우리동리에 드리어 오게할수업다고 가진 방법으로 배척함으로 정씨는 엇지할줄을 모르고헤매인다더라(문천)

族祖殺害犯公判
칠일오전디방법원에서

지난륙월십일에 경긔도 양평군고읍면동권리(楊平郡古邑面東權里)에거주하는동면서긔 리동호(李東鎬)(三)가채무상관계로 자긔친족되는 리경용(李敬鏞)(六)을 자긔가근무하는면소에장치하여둔 소독약승홍을섞어서 먹는약이라 속이고 먹여서 죽게한살인사건은 칠일오전열시에 경성디방법원데칠호법뎡에서 리견(里見)검사의 립회하에 개뎡되야장시간의심문이 잇슨뒤 리인(李仁)변호사의 변론이 잇슨뒤 래십오일에 계속공판을하기로하고 동십이시경에 폐뎡하엿다더라

朝鮮學生 ‖統計表作成
전문위원을선뎡 서울학생구락부에서

시내적선동(積善洞)백십번디에 림시사무소를둔 서울학생구락부에서는 지난륙일 하오두시에 계동대종교당내(桂洞大倧敎堂內)에서 십일월례회를열고 순서에의하야 여러가지로 토의한결과 사항에들어가서 여러가지로 학생운동의 당면한문데의 토의가잇는중 전조선학생통계표(全朝鮮學生統計表)를 작성하기로결의하고 전문위원(專門委員)오인을선뎡하고 부원들의의미잇는감상담으로 폐회하엿다는데 결의사항과 피선된 위원은 다음과갓다더라

◇決議事項
一、全朝鮮中等程度以上의朝鮮人學生統計表를作成發表할것
一、全朝鮮苦學生의總數를正確히調査한統計表를作成發表할것
一、每月一回以上의講座와三回以上의讀書會를開催할것

◇調査委員 金榮洙 趙致基 金麗煥 南海星

五十된女子의 離婚慰藉請求
금액은삼만원

평양부관후리(平壤府館後里)재산가 김정건(金鼎健)씨의 처(妻) 최정호(崔貞鎬)오십이세된녀자는 송본(松本)변호사를 대리인으로하야 남편되는 김정건씨를 걸어 리혼확인급 상해위자료손해배상청구(離婚確認及傷害慰藉料損害賠償請求)에 대한소송을 평양디방법원 민사부에데출하야 목하진행중인데 청구금액은 삼만원이며 소송의리유는 전긔최정호녀자는 거금 삼십오년전 즉 십칠세때에 김정건과혼인을하고 동거케되얏스나 김정건은 뎡신(鄭鼎信)이란녀자를축첩하야 동거하는동시에 이십오년전에는 최정호를축출하야 안해로 정하야 최정호는 집을정하고 독립생활을 하다가 엇던때에 도라온즉 김정건은 구타까지 하엿스며 하등의보조가 업슴으로 결국소송을 데긔케된 것이라더라(평양)

舍音作奸으로 디주가대경실색

광주금뎡(光州錦町)사는정사흥(鄭士興)씨가 동군우치면(牛峙面)에둔토디에대하야 금년의여러가지 련재로수확이 감하엿슴을불구하고 소작인이 태만하엿다하야 벌조(罰租)라는명목으로 매두락에 두말식을 더하얏다고 당디소작회(小作會)에서대책을 강구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이 벌조는 정사흥씨는 대경실색하야 사실을 됴사하야본결과 사음중에 불량한자의잘못임을알고 즉시사음을 폐지시키는동시에 정사흥씨는 종래부터 사음이 소작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하야 차후로도 소작회규측대로실행하겟다는 서약서(誓約書)를 소작인회련합회(小作人會聯合會)로보내엿슴으로 동회에서는 사실여하를 됴사중이라더라(광주)

奇怪한 文川郵便
본인의거절이 업는신문지를

거절한다고도로가져와 함남문천우편소(咸南文川郵便所)에는 우편물배달이 항상지체되야 일반의비난이만흔중 요지음에는 별괴괴망측한일이 다잇다고 비난이만타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 들으면 신문을배달하는데 사오일내지 륙칠일의치를모하 두엇다가 한번에배달하며 그것도본인에게 직접배달하는것이 아니라 **전편으로** 보냄으로 종종 중간에서 서실되는폐단이 쓰며 또지난달초순경에는 문천군도초면룡연리(文川郡都草面龍淵里)조성원(趙聖元)으로부터 본보 문천지국(文川支局)에 신문을 청구하얏슴으로 즉시발송하얏더니 메칠이못되야 본인이 거절한다고 도로가져왓슴으로 그내용을탐지하야 본즉 거절한일이 업다하며 그뒤에또한동군 도초면소(都草面所)조병초(趙炳楚)씨에게로가는 신문이 도로왓슴으로 발송을 정지하고잇섯는데 전긔조병초씨가 지국에와서 신문을 무슨까닭으로발송치아니하느냐함으로 지국에서는 당신이거절한 까닭으로보내지안는다한즉 나는절대로 거절한일이업다함으로 지금은 계속하야 발송하는중인데 지난

이일에는 동군명효면원당리(明孝面元塘里) 한정래(韓貞來)씨에게로가는 신문이또다시도라왓슴으로 그것을됴사하야본즉 역시본인은절대로거절한일이업다함으로 본보문천지국에서는 즉시우편소에가서 그사유를질문한즉 사무원들은아조무책임하고 모호한 답변을하며 배달부에게 됴사하야보겟다함으로 도라왓다는데 이에대하야 일반의비난이자자하다더라(문천)

通行危險한 潭淳間道路
일반의불평이만타

전남담양(全南潭陽)과 전북순창(全北淳昌)사이 십리허에 자동차(自動車)가 통행된이후로 전북임실(任實)운봉(雲峰)등각디와 전남으로는 광주(光州)장성(長城)각동디의 상업가(商業家)들이 더욱 통행이 빈번한까닭에 매일 왕복하는 자동차가 만원이상의 큰복잡한상태에 잇서서 매일통행이 복잡할뿐만아니라 수십척의 우마차(牛馬車)까지 통행이 빈번하야 일시라도 통행자가그칠사이가업는 소위이등도로임도 불구하고 군당국자들은 몸을움이는지 일반의불평이 날로심한모양인데 지난이삼일간은 두번이나 자동차가 구렁에싸졋슴으로 일반승객은 물론운전수까지 죽을욕을 당하엿다는바 근일은더욱 이되야 더욱위험하다더라(담양)

京城無産靑年 執行委員會
여러가지를결의

시내수은동 일백사십번디에회관을둔 경성무산청년회(京城無産靑年會)에서는 오일 오후여섯시부터 데오회집행위원회(第五回執行委員會)를 본회관에서열고 실행방법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장시간 토의한결과 다음과 가튼결의를 하기위하야 위원삼인을 다시 선거하고 동열시반에무사히 폐회하엿다더라

◇決議
一、巡廻文庫設置에關한件
一、讀書室裝置에關한件
一、新入會員通過에關한件
一、釜山印刷職工罷業團에第二次檄文을發送하며永興與野印刷職工罷業團에激電及檄文을發送할것
一、機關紙發行에關한件
機關紙名은『無產靑年』이라稱하고速히創刊號를發行키爲하야當局에交涉하는同時에準備委員四人을左와如히選擧함
黃永錄 尹植 郭仲恒 盧重賢
一、增選委員
成鳴 郭仲恒 盧重賢

靑陽盜難牛
공주에서차젓다

청양군청양면장승리 강성옥(靑陽郡靑陽面長承里姜成玉)은 금년가을에 룡우한머리를 현금팔십오원에사서 동군화성면룡당리김선동(化城面龍塘里金先同)에게 도조이십오두로 뎡하야 먹여달라고 주엇더니 지난음력 십월사일밤 열한시경에 돌연히 도적을 마젓는바 성옥과 김선동은 소를차지라고 사방으로사람들을어노하 수탐하기로 그동안소비한비용이 놓우며 금본가이상을 소비하고도 차질길이 묘연하든중 본월사일에 공주경찰서로부터 전긔 일허버린 소를 차저노앗다는 통지를밧고 곳 가서 차저왓다더라(청양)

賭博團이自首
순사와격투후에

김포군(金浦郡)에는 금년여름이후로 놀음이 창행함으로 김포경찰서(金浦警察署)에서는 범인대검거에 진력하든중 지난이일밤에 동군 양촌면루산리(同郡陽村面揚山里)음식뎜 영업하는심문택(沈文澤)의 집에서 모모사오인이 도박을하든중 양곡주재소(陽谷駐在所)추뎐부장(秋田部長)과 민순사(閔巡査)들이가서 데포하랴다가 범인과 격투중 필경그들은 순사를 넘어트리고 도주하얏슴으로 두순사는 그대로도라갓섯다는데 지난 오일에 동군군내면 장긔리(同郡郡內面場基里)포목상(布木商)로경모(盧敬模)가 김포경찰서에 와서 자긔가 지난이일 밤에심문택의 집에서도박을 하다가 도주한범인중한사람이라고 자수 하얏슴으로 그러면두자도 불일간 데포되리라더라(김포)

市井雜事

◇元山에二名竊盜 황해도금천군다화면 문탄리(黃海道金川郡多火面文灘里)출생 주소부뎡의 권관수(權寬秀)(三)는 덕원군적뎐면 무릉리(德源郡赤田面武陵里)출생 윤과택(尹果澤)(三)이란자와공모하고 십일월십일일원산(元山)석우동백구번디강현귀(石隅洞一〇九姜顯貴)의집에서 백여원가치의 물품을 절취하고 동십구일관교동시장가소옥김병운(舘橋洞市場假小屋金秉云)의 집에서 현금오십원을 절취한외에 뎡평읍내(定平邑內)수개소에서 절도한일이 잇슴으로 지난 사일오후세시경에 부내 남촌동 시장입구에서 원산서 박, 한, 권 삼형사에게 데포되야 목하취됴중이라는데 다른 죄도 만흘듯하다고(원산)

휘파람

▲성천(成川)에는 당배(煙草)경작자들이 전매국(專賣局)의무리한태도에 격분되여 래년에는 당배를절대로 심으지안켓다고 각촌락에서 말청이되여간다 ▲이에대하야 당국자의 말은 아모리떠든다하여도 래년에 또한등급이잘되면 또심으다고 코우슴만하고잇다나 ▲약한자여 너는조선사람이다 말로만 반항을 하면서 실행에는힘이업다 무슨운동 무엇무엇이 다지구력(持久力)이업는탓으로 이러한코우슴을밧는다

假王 【二六】
白眼子譯

내가 그월계화를 주먹으로쥐여 가지고 입에대이며 부술려버렷더니 사대좌는 내억개에손을탁언지며 거세인목소리로 내귀에 대이고하는말이

『내가평생에 당신과가티의협이만흐신 량반은 또보지를못하엿습니다 그러나 나는이나라국록을먹고 잔뼈가굵엇고 나는어듸를가던지 로국왕의 신하이니 엇지국은을 이즐수가 잇습니까 전당으로가서 감금중에게신 우리뎐하를 구원하십시다』하고 로나잡앗는데 우리두사람의 눈에는눈물이 그렁그렁하엿다

나는 처음에 이나라에를드러온일이 잘못이지 이왕드러와서 남의일을 보아주마한이상에는 중도에 고만둘수도 업슬뿐아니라 지금와서는 로국왕을구원하야 룡상에 안치라는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사람의 생각에는 애인을다른사람의손에 빼앗기는것이 안치라는것보다도 남에게 넘기느냐고 비소도할는지 모르나 내가내친왕을사랑하는 이만콤 내가내친왕을속일수는 업는사정이다 그런고로 내친왕을나는참으로 사랑을하엿지 결단코 나의욕심을채우라던지 무슨야심이 잇섯든것은 아니엿다 그이튼날 아츰에 아모시종도다리지안코 혼자거리서 내친왕궁으로는 고등정책상 내가조치아니 사대좌는무슨일이든지 자긔가모다하기를 조아하고 다른사람이하는것은 얼마콤은 시긔를 하는눈치엇스나 나의일은 사대좌이나 도련형이 만가지고는 아니되게되얏스니 편당으로 내가가면 이두사람을 다리고 가야하겟고 우리가업는동안에 서울에서 우리의 뒤ㅅ배볼사람은 석장군이 아니고는 잡은세상 커불수가업섯다 보다도 나의 생명보다도더중하고 귀한 내친왕을그동안 보호하고 잇슬사람이 석장군한사람뿐인고로 일부러 차저갓든것이다 석장군을보고 사정이야기를하고 내친왕을 아모조록잘보호하야 건장한 보호병을 항상배치하라고 부탁 하엿더니 장군은 머리를굽석굽석 하며

『소신의평생에 공작보다나흔 인물도 련애에는 더못보앗습니다 하고는것을 만히보앗습니다』

『련애만 가지고 이야기가아니오 련애는가슴에 잇는것이아니오 공작은머리에 무엇을쏴보라고 하는것이오』

『그러면 가만히게실수가잇슴닛가』

『그래서곳몃칠안으로 서울을 떠나라하는데 매일커덕 장군에게 련갈을보낼터이고 사흘동안 소식이업스면 서울에 계엄령을 나리고 공작에게 이름을내여노흐라고 요구를하라는뎨얼어오 더드르시오』

『지당하십니다』

『이십사시안으로 장군의요구를듯지안으면 국상이 난것이니 내친왕을 내자리에 안치라는부탁이오』

『이몸은몸이 부서지더라도 국은을 갑흘길이업사온데 조금인들소홀히 할일이잇겟습닛가』

나는손을 내여미러 석장군의손을잡고

『장차일후에 지금장군과이야기하는사람에 대하야 이상스러운 이야기를 드를는지도 모르는것이지마는 그사람은누구가 되던지 왕노릇을 엇더케 하엿다고할터이오』하고 무려보앗다